효광원 2019
Vol. 29

www.hyokwang.or.kr

한마루

한마루는 "남보다 훨씬 뛰어난 걸출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꿈과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곳 여기는 효광원입니다!

HYOKWANG Protection and Treatment Facilites

Contents _ 목차

03 수녀님의 글 – 정 바올라 수녀

05 아동들의 글 – 이○호, 백○태, 임○혁

08 허그캠프 소감문 – 김○선

09 2018년 기획사업
- 2018 신한카드 아름人도서관 지원사업
- 2018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2018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업
- 2018 학교 밖 청소년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8 특수차량 25인승 버스 지원사업

12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13 효광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14 효우리 이모저모

16 효광원 활동 모습

21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23 후원 신청 안내

한마루 Vol.29

발행처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전화 042)271-7053 팩스 042)271-5775 지도신부 김현 마태오 발행인 김정엽 편집 이성희
e-mail hkw7053@hanmail.net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디자인 인컴(042.624.3458)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퇴소를 하게 되면 늦잠을 자고 학교를 잘 안 다닐 것 같다면서 걱정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아무개는 4세 때 엄마가 집을 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고 아빠는 재혼을 한 뒤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형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신경 써서 깨워줄 사람이 없다보니 학교를 종종 안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려 가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 절도를 하다가 효광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쁘게 잘 살았던 아무개가 똑같은 환경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15세 아무개의 이야기는 이곳 대부분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즈음 소년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기본적인 사랑을 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아이들을 법적인 잣대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받을 사랑의 기회조차 없애버리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도 상담 끝에 한 아무개의 말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개가 잘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도 보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 감사합니다. 저 잘되라고 많이 신경 써 주셨잖아요. 퇴소 후에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지내는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엄마와 같은 '사랑'을 전해 주려 합니다. 아무개처럼 저의 관심과 사랑을 체험한 한 명의 아이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발을 땅에 디딜 수 있다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착륙모드'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비행모드'였던 시절이 있었는지요?
그때 어떻게, 누구의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잘 성장하셨는지요?

끝으로 에페소서 2장 10절의 성경말씀으로 부족한 저의 글을 끝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반전의 기회를 준 나의 효광원

글_백○태

안녕하세요. 저는 효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백○태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 5월 이곳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효광원에서 약 8개월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6개월보다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 어쩌면 저에게 반전과 경험의 기회가 된 듯합니다. 8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참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사회에 있을 땐 쉽게 접해보지 못한 경험들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 곳 효광원에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저의 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효광원에서 생활하며 시간이 지나고 배움이 늘고, 느낀 것들이 많아지며 스스로 조금씩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과제빵 수업에 참여하면서 제과제빵 기능사라는 꿈도 생기게 되고, 미래에 제 이름을 건 프렌차이즈 빵집을 차리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과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나름의 노력을 지속해왔고 얼마 전 제과제빵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니 이제 실기시험이 남았는데, 처음 도전한 실기시험에서는 아쉽게도 불합격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실패를 맛보면 바로 포기하고 그만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전 다시 도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꼭 실기시험에도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이라는 열매의 맛을 보겠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가 이렇게 무언가 집중하게 되고, 배움의 기쁨과 도전과 실패의 교훈을 알게 된 것 만으로도 효광원에서의 생활이 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효광원 생활 중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독수리 캠프 참여를 통해 우리 영토인 독도를 직접 가보고 우리영토 독도를 지켜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역사, 일본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관심도 없었고, 그런 저에겐 머리 아픈 생각 일 수 있는데 캠프를 통해 이런 의식이 생긴 것만으로도 대단한 경험이지요. 캠프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울릉도에서 하루를 보내고(사실 전 울릉도도 처음입니다) 독도로 가는 배 안에서는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바다 풍경에 배 멀미도 잊었던 것 같습니다.

멀리 보이는 독도의 모습은 아름답고 무언가 뭉클한 마음이었습니다. 독도는 3대가 덕을 쌓아야만 갈 수 있다고 선생님들께 들었는데 저에게 이런 행운이 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캠프 참여 동안 선생님들께 독도의 역사, 자원, 국제관계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였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독도 땅을 밟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해 그리고 독도에 대해 알 수 있고 생각해보고 직접 가볼 수 있는 이런 색다른 경험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에겐 너무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전 이제 1월 8일 사회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효광원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저에게 이런 특별함이었던 이 곳 효광원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벌이 아닌 기회였고, 경험이었던 시간을 잊지 않고 제 삶의 발판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그캠프를 기억하며…

윤○호 아동의 어머님 김○선
참여일 | 2018년 9월 19일~20일

처음에는 캠프에 참여 한다고 하셔서 "무슨 바보같이 1박2일 동안 해야하나?"
"캠프를 한다고 달라지나" 하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1박2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다면 가야지 라는
마음이였습니다.
같이 점심을 먹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낯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아이에게는 너무나 간절하고 소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캠프장은 잘 정돈 되 있었고 깔끔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고 이 아이들을 잘 통제하며 소통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호와 저는 스킨쉽이 많아서 안아주기도 하였지만 많은것을
유리창과 감동으로 채워나갔습니다 허그캠프의
모든 일정이 늦은시간에 끝났지만 피곤함보다는 편안함과 안정감이
들었고 늦은시간까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를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캠프" 라는게 대충 줄세고 노는것이 아니라 허그캠프는 남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 같은 처지의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끈끈이 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같고 영리하고, 생각이 깊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였습니다.
허그캠프는 ○호와 저만의 알지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것이고
앞으로 힘들고 더러운 일이 있을 때 마다 꺼내어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거리가 될것같습니다.
유리님, 가족처럼 챙겨주신 여러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또 보고싶은 내여러분들께서 후유증없으시고 항상 100점 나길.
감사드립니다. 귀가하면서 교통비와 간식으로 아껴뒀던 쓰겠습니다. ㅋ
허그캠프 화팅!! 입니다. ♥

2018 기획사업 III

2018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사업

한국철도공사 지정기탁 패럴림픽 경기관람 지원사업

사업목적 하나된 열정의 슬로건으로 준비하는 평창 패럴림픽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와 관중,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올림픽에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선수들처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의 보호소년들도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문화적으로 배제되었지만 소외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난 화합의 장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성장을 유도함.

사 업 비 오백만원 지원(5,000,000원)

사업기간 2018년 3월

지원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입소 중인 보호소년

한국철도공사 지정기탁 취약계층 성장지원 사업

사업목적 입소 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관계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감사와 나눔에 대한 의식을 제공하여 해양에 관한 흥미유발과 과학적 사고 증진을 통해 해양 정보를 습득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여 공동체 활동을 통해 보호치료시설 목적 달성에 기여함.

사 업 비 일천만원 지원(10,000,000원)

사업기간 2018년 3월 ~ 9월

지원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대상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입소 중인 보호소년

효광원 주요 프로그램

1. 동계·하계방학 레포츠데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는 동계·하계방학 중 레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함으로서 스트레스 해소와 건전한 레저 스포츠 및 취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

★ 매년 7월 ~ 8월(하계방학), 12월 ~ 1월 (동계방학)

2. 海바라기 캠프

국립청소년해양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양과 해양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관련 지식을 배양하고 관련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동시에 현장체험 활동으로 재원 아동들의 심신단련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박3일간 진행하는 해양 힐링캠프. ★ 매년 1월 ~ 2월 중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3. 국토종단 및 횡단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에서 보호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더불어 호연지기를 배우고 심신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의 자세 등을 배워 보호치료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연간 2회 실시 2박 3일(5월, 10월)

4. 보호자 캠프(HUG CAMP)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보호자가 효광원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보호자 캠프를 통해 교육이수와 함께 캠프를 통한 가족관계 회복을 기하는 프로그램.

★ 매월 1회 1박 2일간 실시

5. 대전학원강사연합회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대비 기초학습 지도하는 프로그램.

★ 연중 과목별 주 1회

6.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충남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보호소년들의 검정고시 대비 학습 지도 프로그램.

★ 연중 주 1회

7. 어머니와 요리교실

균형 있고 영양가 높은 수제간식을 함께 만들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

★ 매월 주 2회

지역사회봉사 연근캐기

효우리 이모저모

우리 효우리들이 효광원을 통하여 사랑과 희망을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하계레포츠대회

근린공원청소봉사

효광원 활동모습

7월

07.05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파티플래너 생일자파티

07.1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님 방문

07.07행주대첩 휘호대회

07.18 대전성모병원 무더위 차나눔 봉사

07.12 부산보호관찰소 방문

07.20 천양원 실습생 방문

07.14 세례식

07.24 대전동구청 방문

효광원 활동모습

9월

09.21 영명축일기념 삼겹살 파티

09.17~09.21 독도수비리더 캠프

10월

10.03 떠앗축제-서산

10.04~10.05 산지보전협회 숲체험

10.16 지역사회자원봉사 연근캐기

10.22~10.26 직업진로체험 CAP+

10.23 AFC A급지도자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기증

10.23 킴벨피부과병원 업무협약식

효광원 활동모습

11월

11.29 뮤지컬시카고관람

12.11 문창동성당 후원 삼겹살 파티

12월

12.01 세례식

12.19 바라아트 뮤지컬 갈라공연

12.05~12.07 해바라기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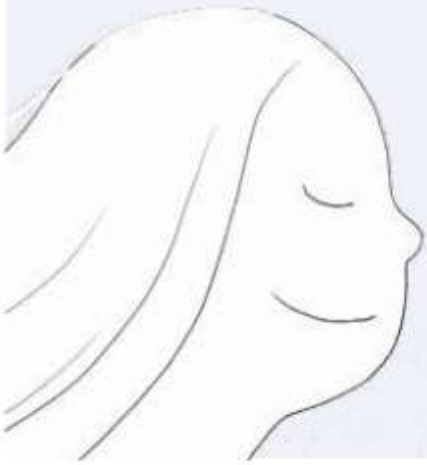
12.20 대전시립합창단 초코파이 기증

12.10 지역사회자원봉사 근린공원 청소봉사활동

12.24 대전가정법원 후원물품 기증

(따뜻한 손길 아름다운 마음)

9월 4일 성심당(간식)
6일 산내동주민센터(간식)
7일 산내동주민센터(주식)
12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3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17일 천주교 대전교구 한끼나눔운동본부(부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김남인/모(부식)
19일 대전 동구청(간식)
물사랑나눔단(주식, 위생물품)
20일 계룡건설(주식)
카리타스 유통(간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가오동성당/사회복지분과(간식)
김기덕/우신철강(부식)
21일 육영석/조광상회(위생물품)
산내자율방범대(간식)
27일 카리타스 유통(간식)
29일 김성훈/하이촌(부식)
10월 1일 성심당(간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4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6일 대전 대흥동 성당(부식)
10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대전광역시/행정안전부(간식)
15일 대전 동구청(간식)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사목국(주식)
16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사회적기업 온(부식)
19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22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23일 돈보스꼬(간식)
24일 변창전/대성청과130(간식)
27일 산내복지만두레(부식)
29일 정류장약국(의약품)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31일 이연(기타)
11월 1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5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7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9일 성심당(간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10일 김명종(주식)
12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13일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사목국(부식)
정류장 약국(의약품)
14일 대전카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부식, 간식)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5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김성훈/하이촌(부식)
16일 대전카톨릭농수산물지원센터(부식, 간식)
19일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사목국(부식)
22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24일 김명종(부식)
김기덕/우신철강(위생물품)
26일 산내복지만두레(부식)
27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28일 변창전/대성청과130(간식)
30일 정지헌(간식)
대전 동구청(간식)
성심당(간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12월 4일 성심당(간식)
5일 정류장 약국(의약품)
7일 산내복지만두레(부식)
11일 문창동성당(부식, 간식)
김광혜/대산포크(부식)
12일 산내복지만두레(간식)
13일 변창전/대성청과130(간식)
17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18일 변창전/대성청과130(간식)
남의정(간식)
19일 오리온재단(간식)
LG디스플레이(기타)
20일 대전시립합창단(간식)
21일 정류장 약국(의약품)
24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간식)
육영석/조광상회(기타)
성심당(간식)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26일 뚜레쥬르 대전 낭월(간식)
28일 산내복지만두레(부식)



자원봉사자

축구 김정섭 **pop** 안선미, 김은실 **논술지도** 박양숙
어머니와 요리교실 봉사자 대동성당, 만년동성당, 도룡동성당 자매님들
겨자씨 검정고시 학습 김호빈, 나하윤, 이봄이, 전준길, 김재은, 김현주, 임효진, 이예성, 이한나, 정희예, 김효신, 한제협
학원연합회 검정고시 학습 이봉환, 이지연, 강수미, 김기정, 최강, 최경수, 박경수, 정경희, 조혜진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시(낭월차고지방향 "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내리면 됩니다)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11번
- 대전역, 중앙시장 정류장 : 501번(마전 방향), 512번
- 대전 복합터미널 정류장 : 501번(마전방향)
- 서대전역네거리 정류장 : 513번
- 정부청사(남문)터미널 정류장 : 108번

자가 운행 시

- 남대전 톨게이트에서 대전역 방면 1.6Km 전방 오른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남대전 톨게이트 방면 1Km 전방 왼쪽(방음벽 설치) 적벽돌 건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

주소 3470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05번길 48(낭월동 399번지)
Tel 042)271-7053 Fax 042)271-5775
홈페이지 www.hyokwang.or.kr E-mail hkw7053@hanmail.net